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self-supervision)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과정희[†]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 교수
생상담센터 / 특임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창대 등(2022)의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인 모형기획·모형구성·모형실시·모형평가의 4단계 개입 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 및 사후 시점에 따라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적 평가에서는 상담 수행능력 및 상담자 발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에 유의미한 증진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충면담을 통한 질적 평가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전문성 및 개인성 영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상담 수행능력, 상담자 발달수준

* 본 연구는 괜열(2024)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self-supervision)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 명 수준에서 2019년 252만으로 정점을 찍고, 2024년에는 260만 명 정도로 불과 20년 사이에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적응과 심리 문제를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 외국인의 70 ~ 8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호소하며, 약 30%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수진, 2019). 이에 따라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심한 우울, 불안감, 자해,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정선요 등 2021; 정혜선, 2012).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약 16개 대학상담센터(고려대, 경희대, 부산대, 삼육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동덕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추계예술대, 충북대, 한양대, 홍익대)에서 중국인 상담자를 고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응 문제의 대부분으로 인해 다문화상담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며 각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상담이 보편화되고 있다(곽열, 하정희, 2021).

다문화상담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내담자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상담 관련 전공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담 관련 전공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 1,499명에서 2020년 2,299명으로 9년 만에 약 65%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4.2%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

비스, 2021). 따라서 상담 관련 전공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글로벌센터와 지자체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기관 및 다양한 지원재단과 대학상담센터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그들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돋고 있다(ANXIMEI, 2020). 이들은 자신의 문화적 경험과 상담 지식을 바탕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상담 취약계층이 더 쉽게 상담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주홍화 등, 2022). 또한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교수자로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자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국의 정신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심리상담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곽열, 하정희, 2022).

이처럼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경험은 사회 다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곽열과 하정희(2021)의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수련 경험과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수퍼비전이 상담자의 전문적·개인적 발달을 촉진하며 양질의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이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소수연, 장성숙, 2014; 조경숙, 2019; Hill et al., 1981; Wiley & Ray, 1986).

Bernard와 Goodyear(2009)는 수퍼비전을 평가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경험이 적은 상담자의 직업적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감독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Bond(1993)는 수퍼비전이 상담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돋는 과정을 통해 상담자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았으며, Gilbert와 Evans(2004)는 수퍼바이저가 독립적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담에 입문한 초심상담자는 상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독립적인 상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퍼비전은 필수불가결한 교육과정이다. 초심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열의가 강하지만 상담 임상 현장에서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지은, 2013). 이들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며(Williams et al., 1997),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퍼바이저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담자로서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수퍼비전을 받는 경험은 매우 중요한 훈련 과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퍼비전은 초심상담자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담자 수련 과정에서는 수퍼비전 기회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로 인해 모든 초심상담자들이 최적의 수퍼비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조경숙, 2019). 특히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상담자와의 경쟁에서 선택받기 어려운 재한 중국인 상담자는 수퍼비전을 포함한 상담수련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다(곽열, 하정희, 2021; 주홍화 등,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어렵게 상담 실습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퍼비전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국어로 작성된 측어록을 한국어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호소하였다(곽열, 하정희, 2021; 주홍화 등,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여러 제한을 극복하며 자신의 상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퍼비전 방법을 활용해 왔다. 이들은 동기 및 동료 상담자들과 함께 피어 수퍼비전을 활용하여 내담자 이해와 상담 관계의 역동 등 핵심 내용을 서로 논의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상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곽열, 하정희, 2021; 주홍화 등, 2022).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경험을 탐색한 곽열과 하정희(2021)의 연구에서, 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언어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한국 내 중국인 수퍼바이저 부재 및 상담 관련 정보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인 수퍼바이저를 찾기보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중국인 수퍼바이저와 비대면 방식으로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깊이 동화된 중국인 내담자나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내담자를 둘러싼 문화적 특성을 중국 본토 수퍼바이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수퍼바이저 간의 교차문화 수퍼비전은 고려해

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Killian, 2001), 수퍼바이저를 통한 수퍼비전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퍼비전 방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기존의 수퍼비전 모델을 살펴보면, 심리치료 이론에 기반한 수퍼비전(Ekstein & Wallerstein, 1972; Rice, 1980; Watkins, 1997)과 Bernard(1979)의 분별 모델은 다문화적 요인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Holloway(1992)의 체계적 수퍼비전 접근은 다문화적 요인을 피상적으로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다문화적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Ladany 등(2005)의 수퍼비전 핵심사건 모델과 Carney와 Kahn(1984)의 상담자 발달 접근 이론에서는 문화적 요인을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수퍼비전 이론은 수퍼바이저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체성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종/민족성에만 집중하며 체계적으로 다문화적 이슈를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Leong & Wagner, 1994).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상담에서 문화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다문화적 역량 부족과 선호하는 수퍼비전 이론 등의 이유로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다문화적 역량이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역동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곽열, 하정희, 2021). 따라서 기존 수퍼비전 모델이 문화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에서 나타난 요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한국인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력의 부족,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수퍼바이저와의 제한된 수퍼비전, 한국 내 중국인 수퍼바이저 부재, 경제적 부담 및 언어적 장벽 등 다양한 어려움과 현실적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상담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검토받기는 쉽지 않다. 이는 소수 인종/민족 수퍼바이저로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직면한 독특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퍼비전 방법 및 전략,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셀프 수퍼비전(self-supervision)은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수행을 관찰하고 스스로 수용 가능한 역량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과정이다(Bang & Goodyear, 2014; Steiden, 1993; Todd, 1997). Leith 등(1989)은 인지행동주의 입장에서 셀프 수퍼비전을 임상회기, 진단회기 및 중간·종결 3 단계 모델을 제시하며, 각 단계가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Morrisette(2012)는 셀프 수퍼비전을 개인내적 측면, 임상적 측면 및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이론적 근거, 실천 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정신의학 입장에서 Lewis(1991)는 자기탐색 과정을 통해 치료자들이 자신의 치료적 개입을 검토하는 체계적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론에서 셀프 수퍼비전을 제시해 왔지만, 셀프 수퍼비전의 원리, 구체적 과정 및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조경숙, 2019). Dennin과 Eills(2003)는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조절 이론과 목표설정 이론을 셀프 수퍼비전의 핵심 기저로 제시하며, 셀프 수퍼비전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위해 자기조절을 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셀프 수퍼비전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상담자의 자기성찰이다.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정서와 사고 및 행동 등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내담자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전문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Neufeldt, 2004; Neufeldt et al., 1996). 그러나 초심상담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담 수행을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며 셀프 수퍼비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찰’과 같은 수준이 높은 훈련 기술은 숙련된 상담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Morrissette(2012)는 셀프 수퍼비전이 개인의 상담경력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유사한 맥락으로 Nelson과 Neufeldt(1998)은 초심상담자의 전문성 성장을 위해 기초 수련에서부터 성찰기술 훈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감수성이 높은 수퍼바이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신의 언어적 장벽과 여러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수퍼비전을 받는 것에 제한점이 많다고 호소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이 셀프 수퍼비전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자기성찰을 포함하여 상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Fuhrmann(1978)은 셀프 수퍼비전이 편리하고 즉시 이용 가능하며 기존 상담 수퍼비전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셀프 수퍼비전을 추천하였다. Morrissette(2012)는 셀프 수퍼비전이 상담자의 강점과 욕구를 탐색하며 발달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으며 기존의 수퍼비전과 병행할 경우 더 적절하고 명확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상담자의

인지 · 정서 · 태도 및 행동 반응을 검토하고 구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Lecomte & Bernstein, 1978).

이상의 내용을 통합해 보면, 셀프 수퍼비전은 매우 경제적이며, 편의성이 높고 유용한 형태의 수퍼비전 방식이자 대안적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셀프 수퍼비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으며, 개념과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옥신(2019)은 학교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면서 상담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고 자기성찰과 핵심과업을 구성요소로 선정하였으나,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조경숙(2019)은 초심상담자를 위한 구조화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제시하며, 자기모니터링, 자기 평가, 자기성찰의 3단계와 수행불안 관리, 사례개념화, 상담기술, 알아차림, 자기효능감의 5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했고 실제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나, 상담과정별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 차지은(2021)은 통합적 놀이치료를 중심으로 초심놀이치료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료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고, 전문성 영역과 개인성 영역을 선정하여 효과성을 증명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국내 셀프 수퍼비전 연구는 아직 초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재한 중국인 상담자와 같은 소수 인종/민족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 셀프 수퍼비전 연구들은 상담 초기,

중기, 종결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담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개발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상담 초기, 중기, 종결기를 포함한 전 과정에 걸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전문성과 개인성 향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상담 훈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어 버전을 개발하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초심상담자를 위한 한국어 버전도 함께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개발 절차와 내용 및 구성은 무엇인가(한국어 및 중국어의 2개 버전)? 둘째,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방 법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 등(2022)의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인 모형기획·모형구성·모형실시·모형평가의 4단계 개발 과정을 기반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였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모형기획 및 모형구성

1단계 ‘모형기획’ 단계에서는 수퍼비전 관련 연구, 다문화상담 및 일반 상담요소와 셀프 수퍼비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포함한 3가지 영역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셀프 수퍼비전의 정의, 목적, 필요성 및 구성요소를 살펴봤다.

또한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수퍼비전 실태 및 요구도, 셀프 수퍼비전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잠재적 수요자인 재한 중국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확보하였다. 다양한 상담경력과 경험에 따른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 상담자 발달단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김계현, 문수정, 2000; 심홍섭, 1998; 유성경, 심혜원, 2005)를 참고하여 상담경험 5년을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경력 5년 미만의 초심자 11명과 경력 5년 이상의 숙련자 7명, 총 18명의 재한 중국인 상담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에서 제시하는 국내 심리상담 자격 기준에 따라 최소 수퍼비전 경험 10회기 이상을 보유하고, 상담심리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춘 상담자로 규정하였다. 본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적정보는 표 2과 표 3에 제시되었다.

심층면담 질문은 재한 중국인 상담자로서 겪는 어려움, 수퍼비전 경험 및 유용성, 수퍼비전에서 경험한 어려움, 셀프 수퍼비전 모형 개발과 관련된 필요성, 구성요소, 진행방식 및 고려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결과 분

표 1.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개발 과정

단계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1. 모형기획	요구분석: - 문헌연구 - 재한 중국인 상담자 심충면담(숙련자 및 초심자)	- 수퍼비전, 다문화상담 및 일반 상담 요소 및 셀프 수퍼비전 국내 개발 모형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본 연구의 한계점 및 본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고, 셀프 수퍼비전의 개념과 목적, 구성요소 등을 분석
	모형의 구성요소와 활동요소 및 조직	- 반구조화된 질문지 제작 - 숙련자 7명을 대상으로 1:1 심충면담 실시 - 초심자 11명을 대상으로 1:1 심충면담 실시
2. 모형구성	예비연구 최종모형 제시 및 지침서 제작	- 문헌연구 및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의 심충면담 분석을 종합하여 모형의 구성요소와 활동요소 선정 및 조직 -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예비모형을 구안
	활동지 및 중국어 번역 개발	- 전문가 검토과정을 통한 수정 및 보완 -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3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 실행 -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예비모형 수정 및 보완
3. 모형실시	최종 프로그램 적용 실시	- 최종모형 확정 - 지침서 제작
4. 모형평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본 연구자의 1차 중국어 번역 - 번역본의 적합성에 대해 총 3차례의 검토 및 수정 - 통번역센터의 번역 전문가의 4차 최종 감수 - 총 10명의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최종 프로그램 실시 - 양적 평가: 사전-사후 평가 - 질적 평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충면담 실시 및 분석

석은 총 2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수자로 이루 어진 분석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평정자 1은 1급 상담심리전문가이며, 상담 경력이 9년 4개 월을 보유한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상담전공 박사로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질적 연구 경험 이 풍부하다. 평정자 2는 1급 상담심리전문가 이자 상담 경력 8년을 가진 같은 학과 박사수

교생으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수자는 1급 상담심리전문가이자 상담 경력 이 26년을 보유한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상담 전공 교수로서 유학생 대상 질적 연구 경험이 많으며 질문지 문항 작성과 심충면담 및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해 감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표 2. 재한 중국인 숙련상담자 심층면담 인적정보(N=7)

구분	성별	나이(만)	상담경력	학력	수퍼비전 경험	상담 활용기법
1	여	36	5년 10개월	석사졸업	38회	통합적
2	여	38	11년 0개월	석사졸업	30회	인간중심, 통합적
3	여	39	7년 2개월	박사졸업	40회	통합적
4	여	33	6년 7개월	석사졸업	53회	통합적
5	여	37	9년 10개월	석사졸업	69회	통합적
6	여	35	5년 8개월	석사졸업	45회	대상관계
7	여	32	5년 11개월	박사수료	54회	통합적

주. 인적사항은 2023년 기준임.

표 3.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심층면담 인적정보(N=11)

구분	성별	나이(만)	상담경력	학력	수퍼비전 경험	상담 활용기법
1	여	29	2년 5개월	석사졸업	15회	인간중심, 통합적
2	여	34	2년 6개월	박사수료	37회	통합적
3	여	35	3년 11개월	박사수료	20회	통합적
4	여	51	11개월	박사재학	10회	인지행동, 통합적
5	여	30	3년 5개월	박사수료	8회	인지행동, 통합적
6	여	32	2년 6개월	석사졸업	60회	통합적
7	여	43	3년 9개월	박사재학	4회	통합적
8	여	27	1년 5개월	석사수료	6회	인지행동, 정신역동
9	여	30	2년 4개월	박사재학	15회	인간중심
10	남	29	2년 2개월	석사졸업	15회	통합적
11	여	44	3년 0개월	박사재학	40회	대상관계, 통합적

주. 인적사항은 2023년 기준임.

2단계 ‘모형구성’ 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재한 중국인 상담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취합하여 모형의 구성요소 초안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층면담 결과에서 도출된 요소들은 1명 이하의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안에 포함시켰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표 4. 선정된 모형의 구성요소

	내용	문현연구	요구조사
전문성	접수면접	●	●
	심리평가	●	●
	사례개념화	●	●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	●	●
	상담 구조화	●	●
	이론적 배경	●	●
	관계형성	●	●
	다문화적 역량	●	
	의뢰 계획	●	
	상담적 태도	●	
초기	위기상담	●	
	전문적 도움추구(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 등)	●	
개인성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	●	●
	수행불안	●	●
	역전이 관리	●	●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	●	●
	상담자 자기효능감	●	●
	문화적 자기개방	●	●
	상담자의 문화적응	●	
	내담자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	●	
	사례개념화 수정	●	
	상담목표와 개입전략의 접검	●	●
전문성	변화를 위한 노력 접검	●	
	저항 다루기	●	●
	상담성과 확인	●	●
	상담자 윤리	●	●
중기	내담자의 변화 접검	●	
	전문가와의 수퍼비전 필요성 접검	●	
	역전이 알아차림	●	●
개인성	자기돌봄 및 소진	●	●
	상담성과 다루기	●	●
	상담관계 종결	●	●
종결기	의뢰 계획	●	●
	상담자 발달	●	
	종결 감정 탐색	●	●
개인성			

선정된 구성요소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상담 전반의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적 차원에서 상담을 초기, 중기, 종결기의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적 차원에서 상담자의 전문성 영역과 개인성 영역으로 나눠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영역은 상담회기 모니터링,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 다문화적 역량, 사례이해, 사례개념화,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중기 및 종결기: 상담목표와 개입전략의 점검 및 수정), 변화를 위한 노력 점검 및 내담자 변화 다루기, 상담성과 다루기, 상담기술의 7가지 요소로 구성하되 상담과정에 따라 세부내용의 차이가 있다. 개인성 영역은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 수행불안,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 자기돌봄 및 소진, 문화적 자기개방의 7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영역의 첫 번째 요소인 ‘상담회기 모니터링’은 지난 상담회기의 난이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을 회상하는 동시에 수월하거나 만족스러웠던 점을 인식하여 상담회기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는 셀프 수퍼비전의 핵심 기능인 ‘성찰적 사고’를 도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상담자가 진행된 상담회기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자신의 내적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성찰 과정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손은정 외 2003; Boyd & Fales, 1983).

두 번째 요소는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 영역으로, 상담자가 윤리적 실천과 올바른 태도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돋는 영역이다. 이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직업 수행에 필요적인 요소로, 내담자의 심리적 웰빙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우홍

련 외 2015). 특히 상담자 윤리는 상담 전문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상담 수행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며(Hill, 2004; Pack-Brown et al., 2008), 상담실무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Corey, 2017). 상담에 첫발을 내딛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내담자를 상담하며, 그들의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독특성을 다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높은 수준의 전문가 윤리적 민감성을 갖춰야 하며 (강한별 등, 2021),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를 깊이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돋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요소는 ‘다문화적 역량’ 영역으로, 상담자가 자신의 다문화적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돋는 영역이다. Sue 등(1992)은 상담자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를 다루며 높은 수준의 다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 초심자 시기부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사례이해’ 영역으로, 내담자와의 접수면접 및 심리평가에서 얻어진 자료를 확인하고 조직화하여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이론적 접근을 선정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이는 사례개념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며 (이수현, 최인화, 2020),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례의 위기수준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위기상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사례개념화’ 영역으로, 내담자 정보를 조직화하고 부적응적 패턴을 파악하며, 직면할 도전과 장애를 예상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임상 전략을 제시하도록 돋는 영역이다(Sperry & Sperry, 2015). 이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영역으로(이명우, 2011), 초심상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방기연, 2016). 초심상담자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례개념화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방기연, 2016). 사례개념화 능력은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초심자 시기부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이윤주, 2001).

여섯 번째 요소는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영역으로, 내담자와 합의하여 주호소문제와 관련된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돋는 영역이다(이수현, 최인화, 2020). 초심상담자는 상담 목표와 전략 설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리 계획한 목표와 전략을 수행하려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Stoltzenberg et al., 1998).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을 사례개념화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써, 본 모형에서는 독립적인 한 가지 구성요소로 선정하여 초심자 시기부터 적절한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 능력 함양을 위한 훈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요소는 ‘변화를 위한 노력 점검 및 내담자 변화 다루기’ 영역으로, 내담자가 일상에서 변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확인하고, 상담과정에서의 변화를 잘 인지하도록 돋

는 영역이다. Colby(1992)는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변화의 시작이 선순환적으로 다른 변화를 이끄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상담중기는 내담자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하는 시기로, 변화를 위한 노력 점검이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다(이수현, 최인화, 2020). 따라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기반으로,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상담 중기에 이러한 노력을 점검하고 변화를 다루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요소는 ‘상담성과 다루기’ 영역으로, 상담종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내담자의 정서 상태, 행동, 신념 및 사고의 변화 등 모든 종류의 궁극적 변화를 다루기 위한 영역이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점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돋고, 상담자가 발견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전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박은민, 2022). 따라서 상담종결기에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상담성과를 다루며, 이는 상담의 마무리 단계에서 핵심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아홉 번째 요소는 ‘상담기술’ 영역으로, 이 영역은 상담과정에 따라 핵심 내용이 달라지며, 특히 상담초기에는 ‘상담 구조화’, ‘전문적 도움추구’, ‘관계형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과 ‘의뢰 계획(문화적 유사성 고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본 모형에서의 ‘상담 구조화’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상담과정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문화권에 따라 상담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더욱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와 상담에 대한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소아, 2014; 이장호, 금명자, 1991). 특히 중국 문화권에서 심리적 장애에 대해 낙인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하며, 중국인 내담자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담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상담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증상을 표현하는 방식과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 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손은정, 최가희, 2021; Bernak & Chuang, 2021). 특히 상담 초반에 상담 구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앞으로의 효율적인 상담진행과 상담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문화권에 따라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에 대한 인식과 지식 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반영한 상담 구조화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도움추구(상담에 대한 회피요인)’는 중국인 내담자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담을 회피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돋는 영역이다. 안혜신과 장유진(2023)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내담자들은 상담 회피의 주요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의 인식, 상담의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 상담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상담에 대한 불신, 정서적 문제에 대한 자기 신념 등을 들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이러한 회피 요인을 탐색하고 내담자에게 맞춤형 상담 사전교육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관계형성과 상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상담초기의 ‘관계형성’은 라포형성(rapport-building)을 의미하며, 내담자와 조화롭고 신뢰성 있는 긍정적 관계를 맺도록

돕는 영역이다. 정서적 신뢰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라포형성이 이루어진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더욱 털어놓으며 상담과정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신경진, 2010). 상담중기의 ‘관계형성’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작업동맹 형성을 돋는 영역으로, 라포형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합의된 목표를 향해 의식적이고 현실적 협력과 더불어 상담자의 유능성을 신뢰할 때 형성된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호소문제 표현 방식이나 상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지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Lewis-Fernandez & Diaz, 2002).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담과정과 최종 상담성과를 예언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술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은 상담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기술 증진시키는 영역으로, 적절한 언어와 비언어적 반응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이끌며, 내담자가 느끼는 핵심적 감정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돋는다(백현옥, 2021). 특히 언어적 반응기술에 있어서 대다수의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한국어로 배운 상담지식을 활용해 중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감정표현에 대한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다. 따라서 언어적 반응기술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감정표현에 대한 한국어 및 중국어 사용의 정확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Egan(2008)는 비언어적 반응기술이 언어적 기술만큼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

와의 상담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자신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 양식을 점검하고 탐색하는 것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기술을 꾸준히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상담초기의 ‘의뢰 계획’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문화적 유사성의 영향을 점검하고 내담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의뢰 여부를 판단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상담현장에서 민족적 정체성이 유사한 상담자를 배정하지만, 이는 항상 상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부 내담자는 속한 문화적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비밀보장을 원하며 자신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상담자를 선호할 수도 있다(방기연, 2022).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상담자에게 의뢰할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상담중기 ‘상담기술’ 영역에 ‘저항 다루기’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저항을 인식하고 다루도록 돋는 영역이다. 상담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익숙한 방식과 패턴을 포기하거나 변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이 발생한다(조성호, 1999). 내담자의 저항은 생산적인 상담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저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숨겨진 내담자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며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상담종결기 ‘상담기술’ 영역에는 ‘상담관계 종결하기’와 ‘의뢰 계획’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Mann(1973)은 모든 상담과정에서 종결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며, 종결 시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실감이 실존과 문제와 관련되어 모든 내담자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종결은 때로 상담자의 개인 사정, 기관의 지원 사업 종료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의뢰(referral)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담자의 독립을 돋는 종결과정을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개인성 영역은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 역전이 관리, 수행불안,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자기개방. 자기돌봄 및 소진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상담과정에 따라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다. 개인성 영역의 첫 번째 요소는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으로, 한국에서 중국인 상담자가 자신의 문화지능과 문화적응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각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문화지능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Earley & Ang, 2003), 한국에서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재한 중국인 상담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이다. 특히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한국문화와 문화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깊이 공감하기 어렵고 좋은 상담성과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과다한 변화를 경험할 때 발생한다(Berry & Annis, 1974). 상담을 전공한다는 이유 하나로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담현장에 투입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한국문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혼란스러움과 회의감을 경험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결국 중국인 내담자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지능 수준을 평가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성 영역의 두 번째 요소는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로,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 욕구,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각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상담과정에서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특히 상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 욕구 등을 인위적으로 분석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되었다(김정규, 2015; Yontef, 1993). 그러나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 반면에 자신에 대한 지각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조경숙, 2019). 상담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서 상담자 스스로에 대한 자각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자각 능력이 높은 상담자는 더욱 심층적인 상담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박정민, 2006).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도 문화적인 민감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및 사고를 민감하게 자각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초심 시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역전이 관리’ 영역으로, 상담자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 영역이다. 모든 역전이는 상담자의 내적 욕구 및 감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역전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상담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Hayes & Gelso, 1991). 따라

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도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전이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해서 역전이 관리능력까지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요소는 ‘수행불안’ 영역으로, 상담자가 자신의 불안과 불안 대처방식을 지각하고 관리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초심상담자는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홍수현, 최해림, 2001), 이는 상담 수행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kovholt & Ronnestad, 2003).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도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고 이를 유발하는 요인과 대처방식을 면밀히 살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자기효능감’ 영역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며 저해 요소를 해결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은 상담의 질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Gunduz, 2012; Larson et al., 1992), 특히 소수집단에 속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자기효능감을 증진함으로써 수행불안을 줄이고 더 나은 상담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요소는 ‘자기돌봄 및 소진’ 영역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전문적 자기돌봄과 개인적 자기돌봄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소진을 예방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Skovholt(2001)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해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자각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안녕감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 조력 전문가로서 자기돌봄은 필수 요소이므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도 초심 시기부터 자신의 정서 상태와 발달 수준

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소진을 예방하고 다양한 자기돌봄 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소는 ‘문화적 자기개방’ 영역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문화 차이와 문화적 주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자기개방이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하도록 돋는 영역이다. 상담자의 문화적 자기개방은 내담자와 다양한 문화적 주제(문화 차이, 정체성 개방 등)를 기꺼이 다룰 의지가 있으며,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와 국적, 언어 등 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있을 때 충분한 라포를 형성한 후 문화적 자기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Choi et al., 2015).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적절한 시기에 문화적 자기개방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활동요소는 [익히기], [알아차리기]와 [숙고하기]로 구성하였다. [익히기]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각 전문성 및 개인 성 영역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기초적 학습의 내용을 담은 영역이며, [알아차리기]는 상담회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여 자기성찰을 돋는 영역이다. [숙고하기]는 성찰 질문을 통하여 깊은 자기성찰로 이끌며, 해당 요소를 직접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예비모형은 총 2차례를 걸쳐 수정·보완하였다. 1차적으로 1급 상담심리전문가이자 다문화상담전공 교수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2차적으로 2명의 상담 수퍼바이저가 전문가 검토 과정에 참여하였다. 상담 수퍼바이저 A(여, 박사)는 20년의 상담경력과 13년의

수퍼비전 경력을 가진 상담심리사 1급 상담교수이며, 상담 수퍼바이저 B(여, 박사)는 18년의 상담경력과 13년의 수퍼비전 경력을 가진 상담심리사 1급과 전문상담사 1급(수련감독) 자격 보유자이다.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3인을 모집하여 4주 동안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피드백을 종합하여 최종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버전의 활동지와 지침서 제작도 완료되었다. 최종모형의 구조와 구성내용은 표 5,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활동지 예시는 표 6에 제시되었으며, 전체 활동지와 지침서는 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곽열, 2024) 부록 C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활동지 및 지침서의 중국어 버전을 제작하였다. 우선, 본 연구자가 직접 1차 중국어 번역하였고 완성된 중국어 번역본의 적합성에 대한 1차 검토는 한국에서 상담관련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국 대학에서 2년 이상 상담교수로 재직 중인 2인이 교차확인 작업(cross check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정된 내용에 대한 2차 검토는 한국에서 상담관련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국 대학에서 10년 이상 상담교수로 재직하며 상담실무까지 병행 중인 1인이 실시하였다. 최종 수정된 내용에 대한 3차 검토는 한중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전공 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재검토하여, 원 의미를 유지하면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본을 다듬었다. 마지막 통번역센터의 번

표 5.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쇠종모형의 구조와 구성내용

	상담 초기	상담 중기	상담 종결기	종결 회기
- 지난 회기 셀프 수퍼비전 점검	- 지난 회기 셀프 수퍼비전 점검	- 지난 회기 셀프 수퍼비전 점검	- 지난 회기 셀프 수퍼비전 점검	
1. 상담회기 모니터링	1. 상담회기 모니터링	1. 상담회기 모니터링	1. 상담회기 모니터링	
2.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	2.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	2.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	2. 상담자 윤리와 상담적 태도	
3. 다문화적 역량	3. 다문화적 역량	3. 다문화적 역량	3. 다문화적 역량	
4. 사례이해	4. 사례개념화	4. 사례개념화	4. 사례개념화	
1) 접수면접 정보확인 및 조작화	1) 추가 정보 확인	1) 추가 정보 확인	1) 추가 정보 확인	
2) 심리평가(행동관찰, 심리검사 결과)	2) 위기상담	2) 위기상담	2) 위기상담	
3) 위기상담	3) 사례개념화 수정	3) 사례개념화 수정	3) 사례개념화 수정	
4) 이론적 접근 선정				
5. 사례개념화	5.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	5.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	5.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	
6.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설정	6. 변화를 위한 노력 척검 및 내담자 변화 다루기	6. 상담성과 다루기	6. 상담성과 다루기	
7. 상담기술	7. 상담기술	7. 상담기술	7. 상담기술	
1) 상담 구조화	1) 전문적 도움추구	1) 전문적 도움추구	1) 상담관계 종결하기	
2) 전문적 도움추구	2) 관계형성	2) 관계형성	2) 상담 관계 종결하기	
3) 관계형성	3)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	3)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	2) 의뢰 계획	
4)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	4) 저항 다루기	4) 저항 다루기	2) 의뢰 계획	
5) 의뢰 계획(문화적 유사성 고려 필요)				
전문성 영역 (Part A)				
개인성 영역 (Part B)	1.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1.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1.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2.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	2.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	2. 상담자의 감정 및 사고	
	3. 역전이 관리	3. 역전이 관리	3. 역전이 관리	
	4. 수행불안	4. 수행불안	4. 수행불안	
	5. 자기효능감	5. 자기효능감	5. 자기효능감	
	6. 자기돌봄 및 소진	6. 자기돌봄 및 소진	4. 자기돌봄 및 소진	
	7. 문화적 자기개방	7. 문화적 자기개방	5. 문화적 자기개방	

곽 열 · 하정희 /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self-supervision)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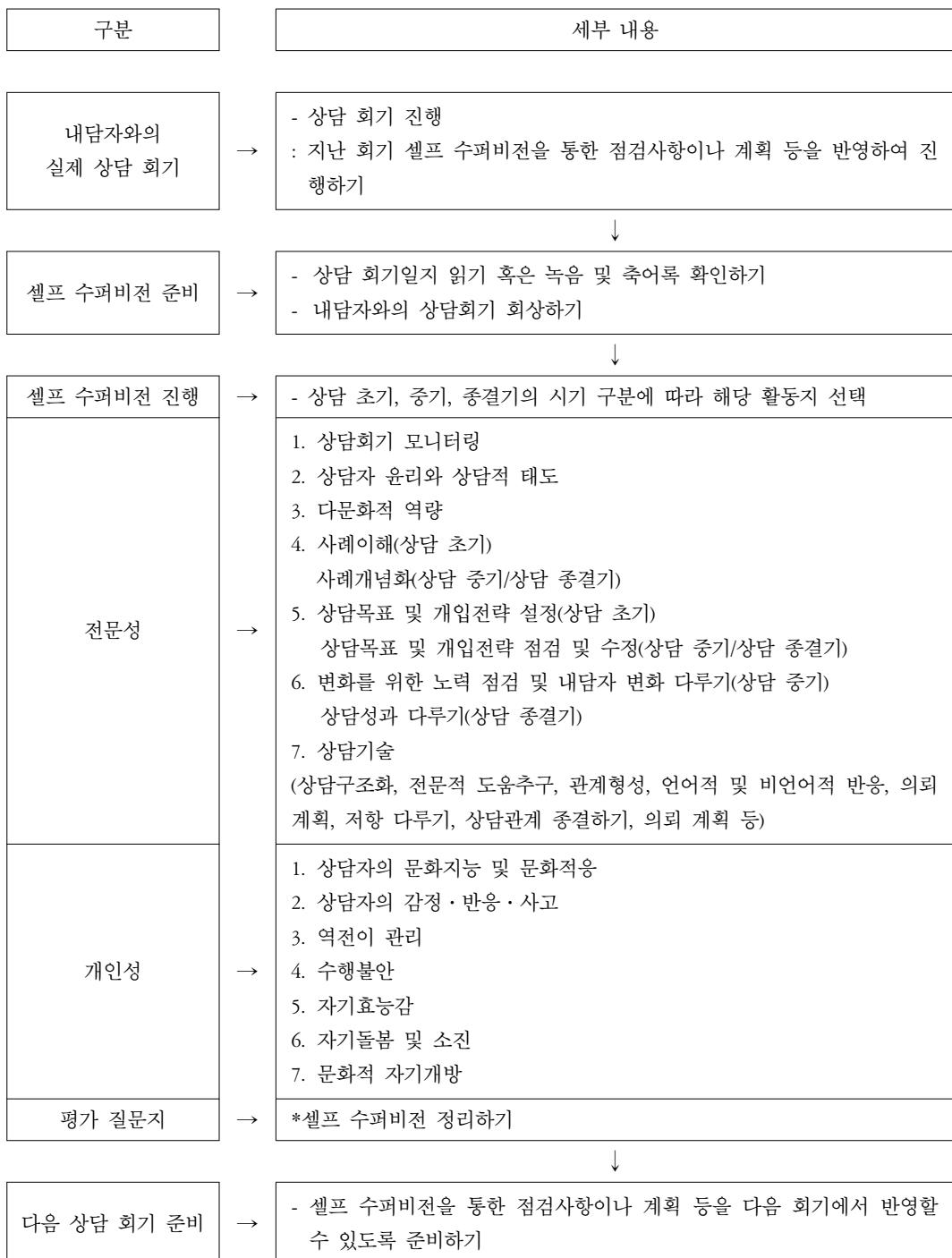


그림 1.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실행 과정

표 6.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활동지 예시

7. 상담기술

7-1. 전문적 도움추구(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국인 내담자)

[익히기]

- ※ 국내 체류 아시아 유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곽윤경, 2022)에 따르면, 이들은 심리적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같은 지인과 상담하거나(40.1%), 본국의 가족, 친구 등과 상담하였고(37%), 상담센터와 같은 학교 내 지원 부서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7%)(안혜신, 장유진, 2023).
- ※ 국내 한국인 내담자보다 중국인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심리적 도움에 부정적 태도를 지닌 경우가 많다(안혜신, 장유진, 2023).

[알아차리기]

▶ 다음은 전문적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몇 가지 핵심 항목입니다. 각 항목을 체크하여 이번 사례에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해 봅시다.

<input type="checkbox"/> 상담에 대한 중국 국내의 인식 현황	- 중국에서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동일하게 취급 - 중국에서는 자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리상담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중국에서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상담 서비스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담의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	-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알까봐 - 상담에서 말한 내용이 학교에 알려질까봐 두려움 - 중국 친구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 창피해서 - 이전에 심리적으로 문제 있었을 때 정신병자로 봐서 트라우마가 생김
<input type="checkbox"/> 상담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 상담을 받는다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럽다 - 심리상담은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선입견 -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눈치 보임 - 상담을 받으면 하자 있는 사람이라는 식의 사회적인 인식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 한국에 오기 전에는 심리상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 -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중국에서는 상담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학교의 지원 부족	- 모국어 상담이 하루만 가능해서 예약이 오래 걸림 - 유학생 전담 상담자가 부족해서 필요할 때 상담을 받지 못함 - 중국 유학생에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 상담센터
<input type="checkbox"/> 상담에 대한 불신	-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 - 상담의 효과에 대한 낮은 신뢰 - 한번 좋지 않은 상담 경험 때문에 다시 상담을 가지 않게 됨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문제에 대한 자기 신념	-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된다. -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 정신적인 문제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인식 - 정서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경향

참고 안혜신, 장유진 (2023)

표 6.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활동지 예시

(계속)

[속고하기]

- ▶ 위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이번 상담에서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어떻습니까?
 긍정적 태도(5점 만점):

- 부정적 태도(5점 만점):

- ▶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이번 상담에서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인/자발적 내담자(5점 만점):

- 소극적인/비자발적 내담자(5점 만점):

- ▶ 이번 상담에서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상담자와의 관계나 상담과정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

- ▶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자(나)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노력을 무엇입니까?
 필요한 내용을 내담자에게 말하듯 적어봅시다.

- ◆ 지난 셀프 수퍼비전을 실시하였다면,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내용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무엇이며,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까?

역 전문가에게 4차 최종 감수를 받아 어법, 시제 등을 검토하여 표현을 평이하고 자연스럽게 다듬어 최종 중국어 버전이 확정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모형실시 및 모형평가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IRB(HYU-2023-022)의 심의를 통과하여 진행하였으며, 모집공고를 통해 10명의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추고, 상담경력 5년 미만이며,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인 수퍼비전 경험 10회기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선정되었다. 프로그램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사례를 적용하여 셀프 수퍼비전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를 받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약 1시간의 사전교육을 제공받았다. 실험 조건으로는 처치 이외의 다른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및 최소화하기 위해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지 않는 사례로 설정하였으며, 주 1회씩 최소 3개월(최소 10회기) 동안 상담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을 별개로 설정하지 않고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채택한 이유는 약 3개월간 셀프 수퍼비전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수퍼비전도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과정에서 셀프 수퍼비전 적용 사례가 조기 종결되는 경우 즉시 본 연구 책

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는 연구 참여 기간에 조기 종결된 사례가 없으므로, 따라서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정보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측정도구

상담자 수행능력

상담자 수행능력 척도는 조경숙(2019)이 초심상담자의 셀프수퍼비전을 위한 구조화된 모형 개발 연구에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초심상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척도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 능력(6문항), 사례개념화 능력(6문항), 상담자 자신의 불안 관리 능력(5문항), 상담대화기술 능력(6문항), 개인화 능력(5문항)의 5가지 영역에서 초심상담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조경숙(201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상담자 발달수준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는 심홍섭(1998)이 수퍼바이저가 상담자 발달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척도로, 상담대화기술(10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사례이해(11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 윤리적 태도(9문항)의 5가지 영역에서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평가하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표 7. 실험집단 참여자의 인적정보(N=10)

구분	성별	나이(만)	상담경력	학력	수퍼비전 경험	상담 활용기법
1	여	33	3년 7개월	석사졸업	63회	통합적
2	여	34	3년 1개월	박사수료	42회	통합적
3	여	29	3년 2개월	석사졸업	18회	통합적
4	여	51	1년 6개월	박사재학	18회	인지행동, 통합적
5	여	30	4년 3개월	박사재학	23회	인지행동, 인간중심, 통합적
6	여	32	4년 1개월	박사수료	31회	통합적
7	여	44	4년 4개월	박사재학	48회	인지행동, 인간중심, 대상관계, 통합적
8	여	35	4년 6개월	박사수료	27회	통합적
9	여	30	3년 2개월	박사수료	21회	대상관계, 통합적
10	여	28	2년 5개월	석사수료	18회	인지행동, 게슈탈트, 대상관계

주. 인적사항은 2023년 기준임.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모수 검정인 월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집단의 사전·사후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질적 평가에서는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본 연구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총 3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된 팀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 저자인 평정자 1은 자료 수집당시 상담 경력이 8년을 보유한 2급 상담심리사이며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상담전공 박사수료생으로서 외국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CQR 및 근거이론을 활용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평정자 2는 상담 경력이 9년을 보유한 1급 상담심리전문가이자 같은 학과 박사수료생으로 CQR 및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다. 평정자 3은 상담 경력 5년 3개월을 보유한 같은 학과 박사수료생이며 2급 상담심리사로 재학 동안 다수의 CQR 연구 경험이 있었다. 감수자는 상담 경력이 26년을 보유한 1급 상담심리전문가이자 다문화교육학과 다문화상담전공 교수로서 유학생 대상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하다.

인터뷰 자료는 코딩 후 영역 범주화, 하위범주 추출과 교차분석을 통해 처리되었다. 먼저 분석 과정에서 평정자들은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로 요약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한 후 개별적으로 개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연구팀은 각자 독립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논의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후 감수자가 교차 분석된 자료의 감수를 진행하였다. CQR에서의 빈도에 대한 Hill(2012)의 제안에 따라, 분류된 하위범주가 모든 사례 또는 2개를 제외한 모든 사례(9~10사례)에 해당되면 ‘일반적’(general), 과반수 이상의 사례(6~8사례)에 해당되면 ‘전형적’(typical), 사례의 절반 미만(2~5사례)에 해당되면 ‘변동적’(variant), 한 사례에만 나타나면 ‘예외적’(rare) 범주로 표기하였다. 예외적 범주의 경우에는 연구팀이 합의하여 예외적이고 드문 내용으로 보고 대부분 삭제하였다. 교차분석을 마친 후, 빈도의 추가 여부와 새로운 영역의 생성 여부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빈도와 영역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연구 참여자 실험집단 사전·사후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의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월록은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fned-rand Test)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 결과,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 수준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점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은 사례개념화 능력, 알아차림 능력, 상담대화기술 등 많은 영역에서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었다.

질적 분석 결과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적용 경험과 프로그램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0명의 연구 참여자와 1:1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어떠한 내적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담 분야에 많이 사용해 오던 합의적 질적 방법(CQR)을 활용하여 면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합의적 질적 방법(CQR)은 소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각 참여자들의 경험의 독특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귀납적 방식으로 개인의 내적 경험을 분류해 유목화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프로그램 적용 경험’과 ‘프로그램 만족도’ 2가지 주제에 따른 영역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적용 경험’에서는 ‘상담 수행능력(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의 개인적 측면(개인성)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수퍼비전 프로그램 적용시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으로 3개의 영역과 2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프로그램 만족도’에서는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표 8. 연구 참여자 실험집단의 상담 수행능력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N=10)

변인	사전(N=10)		사후 (N=10)		증감인원 (증가/ 동률/감소)	Z	P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상담 수행능력 (총합)	79.70(8.73)	77.5	101.80(10.97)	102.00	8/1/1	-2.55*	.011
사례개념화 능력	17.80(2.34)	17.0	21.20(2.20)	21.00	8/1/1	-2.56*	.010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 능력	16.50(2.92)	15.0	21.30(3.83)	21.50	7/2/1	-2.38*	.017
상담대화기술 능력	17.20(2.20)	17.0	21.50(3.75)	22.00	8/0/2	-2.52*	.012
상담자 자신의 불안관리 능력	14.00(2.21)	14.0	18.40(2.32)	19.00	8/0/2	-2.53*	.012
개인화 능력	14.20(2.20)	14.5	19.40(2.32)	20.00	8/1/1	-2.55*	.011

주. *P<.05, **P<.001

표 9. 연구 참여자 실험집단의 상담자 발달수준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N=10)

변인	사전(N=10)		사후 (N=10)		증감인원 (증가/ 동률/감소)	Z	P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상담자 발달(총합)	134.60(10.34)	138.50	156.50(19.07)	151.00	7/2/1	-2.24*	.025
상담대화기술	26.60(2.68)	27.00	31.20(4.64)	30.00	6/3/1	-2.20*	.028
사례이해	29.50(2.84)	30.00	35.00(4.21)	33.50	6/2/2	-2.19*	.028
알아차리기	24.50(1.72)	24.50	28.80(2.97)	29.00	6/3/1	-2.20*	.028
상담계획	29.10(1.96)	29.50	33.00(3.83)	31.50	6/3/1	-2.19*	.028
인간적·윤리적 태도	24.90(2.02)	25.50	28.50(4.27)	27.00	6/3/1	-2.03*	.042

주. *P<.05, **P<.001

강점'과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보완점'으로 2개의 영역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모든 분석은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 1명,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2명의 박사수료자와 질적 연구지도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상담심리사 1급)의 감수에 의해

진행되어 합의된 결과이다. 구체적 질적 분석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회기, 사례개념화, 상담기술,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기술, 상담자 윤리 및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표 10.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적용 경험에 대한 질적분석

주제	영역	범주명	빈도
상담 수행능력(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회기 모니터링을 통해 나의 상담회기를 탐색하고 평가한다.	일반적 (10)
		사례개념화 점검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사례를 이해한다.	일반적 (9)
		상담자 윤리를 알아차린다.	전형적 (8)
		문화적 자기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나의 다문화적 역량을 높인다.	전형적 (8)
		문화적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전형적 (8)
		상담자 윤리를 알아차린다.	전형적 (8)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기술 수정 과정을 통해 나와 내담자의 반응 변화를 경험한다.	전형적 (7)
		상담기술 전반을 살펴보며,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검한다.	전형적 (7)
		상담적 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변동적 (5)
		상담자의 감정을 점검하며, 나의 감정을 명료화하고 위로를 경험한다.	일반적 (9)
프로그램 적용 경험		문화적 자기개방을 점검하며,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경험한다.	전형적 (8)
		수행불안을 점검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불안 원인을 깨달아 점차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	전형적 (7)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하는 나를 인식한다.	전형적 (7)
		자기돌봄을 소홀히 하던 나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한다.	변동적 (6)
		통합적 시각으로 소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변동적 (6)
		역전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와 상담자인 나를 깊이 이해하여 안정감을 경험한다.	변동적 (5)
		'이게 맞나? 어떻게 개입하지?'라는 의구심과 막막함을 경험한다.	전형적 (7)
		셀프 수퍼비전이 익숙치 않아 적용과정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변동적 (5)
		반복되는 적용과정을 통해 셀프 수퍼비전 형식을 익히고 어려움이 감소된다.	일반적 (9)
		부록에 제시된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형적 (7)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적용 시의 어려움 극복과정		다양한 서적 등 자료를 활용한다.	변동적 (5)
		셀프 수퍼비전에 집중하도록 컨디션을 조절한다.	변동적 (5)

주. 일반적: 모든 사례, 또한 1사례만을 제외한 9사례에 해당함(9~10사례), 전형적: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함(6~8사례),
변동적: 전체 사례의 절반 미만에 해당함(2~5사례)

표 11.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적분석

주제	영역	범주명	빈도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만족도	[의회기], [알아차리기]와 [숙고하기]를 통해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본 모형을 통해 상담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하고 상담과정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	일반적 (10)
		다양한 상담적 요소를 전문성 영역과 개인성 영역으로 나누어 사례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점검하도록 돕는다.	일반적 (9)
		중국어 버전의 활용이 한국어 수퍼비전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된다.	일반적 (9)
		상담과정(초기, 중기, 종결기)에 따른 전반적 주요 과정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명료화할 수 있다.	전형적 (8)
		[의회기], [알아차리기]와 [숙고하기]를 통해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전형적 (8)
	개방형 질문을 통해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셀프 수퍼비전의 적용이 다양한 사례로 확장되었다.	전형적 (8)
		재한 중국인 상담자뿐만 아니라 다문화상담을 하는 모든 상담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전형적 (8)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셀프 수퍼비전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전형적 (7)
		내 자신을 더욱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낸다	변동적 (5)
		각 영역 내용에 대한 목차 제시가 필요하다.	전형적 (6)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보완점 (아쉬운 점)	상담과정의 주요 내용을 모듈별로 분리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상담과정의 주요 내용을 모듈별로 분리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 (8)
		개인 수퍼비전과의 병행이 필요하다.	전형적 (6)
	초기 활동지에만 [의회기]를 제시하고 중기와 종결기 활동지에 중복된 [의회기] 내용을 생략한다.	초기 활동지에만 [의회기]를 제시하고 중기와 종결기 활동지에 중복된 [의회기] 내용을 생략한다.	변동적 (5)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앱 개발이 필요하다.	변동적 (3)

주. 일반적: 모든 사례, 또한 1사례만을 제외한 9사례에 해당함(9~10사례), 전형적: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함(6~8사례), 변동적: 전체 사례의 절반 미만에 해당함(2~5사례)

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문화적 자기평가와 문화적 유사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다문화적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자기개방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고민이 해소되고, 중국인 상담자로서의 부담감이 줄어들며 상담장면에서 보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셀프 수퍼비전이 익숙하지 않아 적용과정에서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과 막막함을 느꼈으나,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면서 반복적인 적용과정을 통해 셀프 수퍼비전 형식을 익히면서 어려움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강점 및 보완점(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고 상담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중국어 버전 활용은 한국어 수퍼비전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으며, 중국인 상담자뿐만 아니라 다문화상담을 하는 모든 상담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완점으로는 프로그램의 간소화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앱 개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의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로서의 발달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연구하였으며,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통하여 상담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수퍼비전에 대한 요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대다수의 한국인 초심상담자와 유사하게 내담자로 인한 어려움과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례 이해,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 형성, 상담 과정에서의 진전 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재한 중국인 상담자는 내담자의 국적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낮은 상담 인식도, 중국어로 정서표현 시 느껴지는 어색함, 과도한 친밀감 표현으로 인한 불편감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개방에 대한 내적 갈등, 조심스럽고 긴장된 마음, 전반적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내적 영역(예, 역전이, 불안, 문화적 자기개방, 자기효능감)에서도 도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은 상담자 발달단계의 특수성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Skovholt와 Jennings(200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상담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전문성과 인

간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전문성과 개인성 발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탐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이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는 조경숙(2019)의 연구에서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개발 시 사례개념화, 수행불안 관리, 알아차림, 상담기술, 자기효능감 등을 세부 구성요소로 선정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며, 차지은(2021)의 초심놀이치료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개발 연구에서 사례이해, 상담 기술과 같은 전문성 측면과 수행불안, 역전이,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성 측면을 고려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하여 전문성과 개인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제안하며, 이는 기존 연구들과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상담과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도전과 어려움을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상담’, ‘전문적 도움추구’, ‘언어적 반응기술’ 중에 ‘감정표현(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탐색, ‘관계형성’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점검과 탐색, ‘문화적 자기개방’과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추가하여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 맞춤형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구성하였다. 많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상담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되는 위기 상담에 투입된 경우가 많다. 비교적 지지자원이 적은 중국인 내담자와의 위기상담에서 병

원 방문 동행, 부모와 학교 간 중재 역할 등 실무적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지어 소진 까지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에는 ‘위기상담’이라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위기상담의 종류를 제시하며, 내담자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특히 한국에서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중국인 내담자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주변 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처 전략 제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기상담’ 활동요소 내용을 통하여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한 개입 전략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위한 보호 대처 전략을 세웠는지, 혹은 상담 과정에서 소진까지 경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기상담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위기상담’에 대한 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셀프 수퍼비전 모형(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과 차별됨을 보여주었다.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낮은 인식도로 뽑았다. 이로 인해 구조화 작업 진행의 어려움, 효과나 진전이 없는 상담과정과 조기종결 등 상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에 ‘전문적 도움추구(상담에 대한 회피 요인 파악)’ 구성요소를 추가하였다. 이는 중국인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상담 구조화 작업이 어려워지고, 효과나 진전이 없는 상담과정, 조기 종결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본 구성요소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탐색하고, 특히 상담을 회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상담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내담자의 상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 구조화 작업 강화와 사전 교육 제공 등 다양한 개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개발된 셀프 수퍼비전 모형(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에서 확인되지 않은 차별적인 점이다.

또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기술’ 구성 요소에 ‘감정표현(한국어와 중국어)’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이 한국어로 배운 상담지식을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 적용할 때 정서적 표현에서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을 찾지 못해 공감적 반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표현과 관련된 한국어 및 중국어 감정 단어를 추가하여 언어적 반응기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두 언어 간의 정확성과 차이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중국어로 정서 표현 시 느끼는 어색함을 완화하고, 내담자와 보다 공감적이고 깊은 상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감정표현’ 요소는 기존 셀프 수퍼비전 모형(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중국인 내담자들이 상담자와의 문화적 정체성 유사성으로 인해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며, 이는 상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관계형성’ 구성요소에 중국인 내

담자의 친밀감 표현 여부 및 정도, 이로 인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느끼는 불편감의 수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실천 및 상담 구조화 재설시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중국인 내담자의 상담 인식을 향상시키고, 높은 작업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기존의 셀프 수퍼비전 모형(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차별적인 내용이다.

더불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고민거리로 봤다. 일부 재한 중국인 상담자는 상담 초기에 문화적 정체성을 밝히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묻지 않으면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개인성 영역에 ‘문화적 자기 개방’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개방 시기 탐색, 개방 시 표현 방식과 구체적 예시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문화적 정체성 개방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줄일 수 있었고, 오히려 한국인 내담자와 더 가까워지고 높은 수준의 작업동맹을 맺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기존 연구(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와 차별화되었다. 이를 통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및 문화적 차이로 재한 중국인 상담자가 한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한국인 내담자에게 신뢰를 느끼지 못하며, 상담

과정 내내 조심스럽고 긴장된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한국인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담 구조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상담 구조화’ 구성요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담자에 대한 소개, 상담 구조화 각 내용에 대한 한국인 및 중국인 내담자의 중요도 인식 차이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인 내담자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높은 작업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왔다. 이처럼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은 기존 연구(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상담 구조화’ 내용을 다름으로써 차별성을 보여줬다.

또한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한국인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상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교육제도, 입시 전형, 군대 문화, 취업 문화 등 한국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가 상담 과정에서 신뢰 관계 형성을 방해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다름으로써 한국인 내담자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한국인 대학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문화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 실천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을 다룬 점은 기존 셀프 수퍼비전 모형(정옥신, 2019; 조경숙, 2019; 차지은, 2021)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차별적인 내용이다.

한편,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는 중국인 내

담자와 상담할 때 자신의 미해결된 적응문제로 인해 내담자를 깊이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상담 전문가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나 회의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내담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자신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개인적 영역에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부족한 문화지능과 해소가 필요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중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성찰하도록 도왔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담 관계 개선 및 상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연구결과, 문화적 측면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이해 부족’, ‘중국인 상담자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고정관념’, ‘한글로 보고서 작성 시의 언어적 한계’, 심지어 ‘언어적 장벽으로 한국어 수퍼비전의 불가’ 등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재한 중국인 상담자가 현재의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수퍼비전의 효과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은 기존의 수퍼비전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Lecomte & Bernstein,

1978; Morissette, 1999). 특히 모형의 실제적 수요자인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느끼는 문화적, 환경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합하여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의 개발 방향과 모형 구조를 정립하였다. 본 셀프 수퍼비전 모형은 구조적 측면에서 [의히기], [알아차리기]와 [숙고하기] 3가지 파트로 구성되었다.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이미 학습한 상담요소의 개념을 다시 깊이 의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담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성찰 질문 제시와 실천 활동 제안을 통해 성찰한 것을 더 강화시키도록 돋는 구조화된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는 셀프 수퍼비전의 핵심 요소인 성찰적 사고를 강조한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성찰, 자기평가, 자기강화 활동으로 구성함으로써 셀프 수퍼비전의 이론적 근거인 자기조절 이론과 목표설정 이론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평가에서 본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의 상담 수행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 사례개념화, 상담 대화기술, 그리고 상담자의 불안관리 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조경숙(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상담자 발달 수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초심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차지은(202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심홍섭(199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담자가 성찰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 발

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 한다. 더불어 질적 평가에서 참여자들은 상담 회기 모니터링, 상담자 윤리 및 태도 점검, 사례개념화,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기술, 내담자의 저항 다루기 등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성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감정, 수행 불안, 역전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상담자 자기효능감, 자기돌봄과 소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전문성 영역과 개인성 영역에서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럽고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셀프 수퍼비전이 자기성찰과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며 상담의 질과 상담자의 전문성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 (Barger, 2001; Donnelly & Glaser, 1993; Langs, 1979; Lecomte & Bernstein, 1978)을 뒷받침한다. 이 또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한 상담 장면에서 대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질적 평가에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본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다문화적 역량 평가’, ‘전문적 도움추구’, ‘위기상담’, ‘상담자의 문화지능 및 문화적응’ 등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자신의 다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문화적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수퍼비전의 핵심 사건 모델에서 다문화적 인식과 수퍼비전에서 다문화적 이슈

의 중요성을 언급한 Ladany 등(200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다문화적 수퍼비전 모델에서 내담자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상담자 자신의 문화를 자각하고 상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며, 서로의 문화적 대화와 문화적 자기개방의 중요성을 언급한 Garrett 등(200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셀프 수퍼비전 연구들이 전반적 상담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제기하지 못했던 제한점을 보완했으며, 문화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검증된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은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 적용 초기에는 셀프 수퍼비전 형식 자체를 이해하고 본 모형의 구성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구심과 막막함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반복적인 적용 과정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감소되었으며, 부록에 제시된 예시자료와 다양한 서적 활용, 자신의 컨디션 조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경숙(2019)과 차지은(2021)의 연구에서 초심상담자가 셀프 수퍼비전 적용 초기에는 모호함이나 부담감과 혼란감을 경험했지만, 점차 자기성찰 및 자각 능력이 향상되면서 상담 수행능력과 상담자 발달이 증진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초심상담자의 자기성찰을 촉진시키는 셀프 수퍼비전이 적극적인 성장의 기회로 진입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조윤진 등(2014)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초기 수련 과정에서부터 자기성찰 훈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Nelson과 Neufeldt(1998) 그리고 Morrissette(2012)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까지 국내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교차문화 수퍼비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수집단 상담자를 대상으로 셀프 수퍼비전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수퍼비전 방식에서 경험한 한계와 쉽게 간과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한 자기성찰과 상담 과정 점검을 통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셀프 수퍼비전에 대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개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의 수퍼비전을 보완하면서 적극적 자기탐색 및 상담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셀프 수퍼비전 모형 개발의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둘째, 본 연구모형은 상담의 전반적 과정을 반영하며, 상담자의 통합적 발달을 돋는 모형으로 각 상담 시기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과업들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와 활동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이를 통해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의 전문성과 개인 차원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은 앞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상담교육이나 수퍼비전 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상담과정을 평가하고 당면할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다문화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한국 상담 분야의 활발한 발전에 따라 더 많아질 중국인 유학생 상담자를 전문상담자로 훈련시키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상담과정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전반적 상담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형을 개발하거나 또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실제 사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가 전반적 상담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상담 사례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성까지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들이 초심시기에 겪는 어려움과 수퍼비전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해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따라서 추후에서는 재한 중국인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하고, 초심상담자용 모형과 비교하여 두 모형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숙련상담자용 셀프 수퍼비전 모형을 개발할 경우에 재한 중국인 중급 및 숙련 상담자의 자아성찰 수준을 고려하여 상담과정의 각 구성요소를 모듈별로 분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여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효과검증을 위해 내담자의 복지에 손실을 최소화하였다는 이점은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외에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을 두어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셀프 수퍼비전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 프로그램 적용과정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적용한 시범을 연구자가 직접 보여주는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적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은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에게 초점이 맞추었으며, 중국인 내담자의 입장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국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시각에서 재한 중국인 상담자가 가져야 할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더 풍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다국어 상담에서 비중이 높은 베트남이나 영어권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베트남, 미국 등 외국어 가능한 상담자 및 외국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다국어 버전 셀프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한별, 이상은, 홍소은, 이상민 (2021). 한국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양성 존중 가치 향상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 곽 열 (2024). 재한 중국인 초심상담자를 위한 셀프 수퍼비전(self-supervision) 프로

- 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열, 하정희 (2021).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는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4), 58-84.
- 곽열, 하정희 (2022). 한국에서 상담을 전공한 중국인 상담자의 중국 귀국 후 전문직 적응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267-293.
- 곽윤경 (2022). 국내 체류 아시아 유학생의 건강 실태 및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304, 37-50.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정규 (2015). 게슈탈트 심리치료 창조적 삶과 성장. 학지사.
- 김지은 (2013). 초심 놀이치료자의 미완종결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대, 김은하,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22).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판). 학지사.
- 박은민 (2022). 초심상담자를 위한 상담실습 (효과적인 상담 과정을 담은 지침서). 학지사.
- 박정민 (2006). 상담자의 회기 내 자기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기연 (2016). 상담 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방기연 (2022). *다문화상담* (제 3판). 공동체.
- 백현우 (2021). 초심상담자를 위한 상담기법. *박영스토리*.
- 소 아 (2014).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심리적 불편감, 상담에 대한 지식 및 한국인 상담사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수연, 장성숙 (2014). 숙련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193-222.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와 자기 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손은정, 최가희 (2021). *다문화상담의 실제*. 학지사.
- 신경진 (2010).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법*. 학지사.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신, 장유진 (2023). 중국 유학생이 인식한 심리상담의 접근 및 회피요인. *다문화교육연구*, 16(3), 215-251.
- 오수진 (2019. 11. 24). 심리상담 이주 외국인 33%,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도 생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102600371?input=1195m>
- 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 상담자들이 경험한 윤리 문제와 대처 방법 및 상담 윤리 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 *상담학 연구*, 16(2), 1-25.
- 유성경, 심혜원 (2005).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89-812.

- 이명우 (2011). 사례개념화 수퍼비전 과정-성과 단일 사례연구: 수련기 초기 수퍼바이저 대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19-42.
- 이수현, 최인화 (2020). 셀프 수퍼비전을 통한 상담기술 훈련. 학지사.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장호, 금명자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6(1), 1-18.
- 정선요, 이연우, 김치용 (2021). 중국인 유학생의 아중후군적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방법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4(10), 1425-1434.
- 정옥신 (2019). 상담과정 기반의 학교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77-99.
- 정혜선 (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상담요구도. 한국자료분석학회, 14(2), 949-963.
- 조경숙 (2019). 초심상담자의 셀프 수퍼비전 (self-supervision)을 위한 구조적 모형 개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호 (1999).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 주홍화, 이소연, 서영석 (2022). 재한 중국인 상담전공자의 수련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339-383.
- 차지은 (2021). 셀프 수퍼비전(self-supervision) 모형에 기반한 초심놀이치료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통합적 놀이치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1). 대학원 계열별 외국인 유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2&cd=5525&survSeq=2021&itemCode=01&uppCd1=01020803&uppCd2=01020803&flag=A>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설립별 외국인 유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2&cd=6877&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206&uppCd1=010206&uppCd2=010206&flag=A
- 홍수현, 최해림 (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8.
- ANXIMEI (2020). 재한 중국인 상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조선족과 한족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g, K., & Goodyear, R. K. (2014). South Korean supervisees' experience of and response to negative supervision event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27(4), 353-378.
- Barger, T. Y. (2000). *Self-supervision and empathic empowerment model: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counselor skills training model*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Global. (UMI No. 9982751)
- Bemak, F., & Chung, R. C. Y. (2021). Contemporary refugees: Issues, challenges, and a culturally responsive intervention model for

- effective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9(2), 305-324.
- Bernard, J. E. (1979). Supervision training: A discrimination mod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1), 60-68.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Pearson Education.
- Berry, J. W., & Annis, R. C. (1974). Acculturative stress: the role of ecology, culture and differenti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4), 382-406.
- Bond, T. (1993). *Standards and ethics for counseling in action*. Sage.
- Boyd, E. M., & Fales, A. W. (1983). Reflective learning: Key to learning from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3(2), 99-117.
- Carney, C. G., & Kahn, K. B. (1984). Building competencies for effective cross-cultural counseling: A developmental 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1), 111-119.
- Choi, G., Mallinckrodt, B., & Richardson, J. D. (2015). Effects of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ors' broaching statements about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on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 counselor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3(1), 25-37.
- Colby, K. M. (1992).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근후 역). 하나의학사. (원본 출판 1951년).
- Corey, G. (2017).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천성문 외 공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16년).
- Dennin, M. K., & Ellis, M. V. (2003). Effects of a method of self-supervision for counselor traine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69-83.
- Donnelly, C., & Glaser, A. (1993). Training in self-supervision skills. *The Clinical Supervisor*, 10(2), 85-96.
- Earley, P. C., & Ang, S. (2003). *Cultural Intelligence: Individual interactions across cultur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Egan, G. (2008). Egan 상담모델과 상담기술: 문제해결과 기회개발 (제석봉 외 공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02년).
- Ekstein, R., & Wallerstein, R. S. (1972).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sychotherapy* (2nd e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uhrmann, B. S. (1978). Self evaluation: An approach for training counsel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7(4), 315-317.
- Garrett, M. T., Borders, L. D., Crutchfield, L. B., Torres-Rivera, E., Brotherton, D., & Curtis, R. (2001). Multicultural supervision: A paradigm of cultural responsiveness for supervisor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9(2), 147-158.
- Gilbert, M. C., & Evans, K. (200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 (유영권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1년).
- Gunduz, B. (2012). Self-efficacy and burnout i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3), 1761-1767.
- Hayes, J. A., & Gelso, C. J. (1991). Effects of therapist-trainees' anxiety and empathy on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2), 284-290.
- Hill, A. L. (2004). Ethics education:

- Recommendations for an evolving discipline. *Counseling and Values*, 48(3), 183-203.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Charles, D., & Reed, K. G. (1981).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anges in counseling skills during doctoral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428-436.
- Holloway, E. (1992). Supervision: A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174-214). Wiley.
- Killian, K. D. (2001). Differences making a difference: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supervisory relationship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2(2-3), 61-103.
- Ladany, N., Friedlander, M. L., & Nelson, M. L. (2005). *Critical event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n interpersonal approa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ngs, R. (1979). *The supervisory experience*. Aronson.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105-120.
- Lecomte, C., & Bernstein, B. L. (1978, Mar). Development of self-supervision skills. In *meeting of the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 Leith, W., McNiece, E., & Fusilier, B. (1989). *Handbook of supervision: A cognitive behavioral system*. College Hill.
- Leong, F. T., & Wagner, N. S. (1994). Cross-cultural counseling supervisio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4(2), 117-131.
- Lewis, J. M. (1991). *Swimming upstream: Teaching and learning psychotherapy in a biological era*. Brunner/Mazel.
- Lewis-Fernandez, R., & Diaz, N. M. S. W. (2002). The cultural formulation: A method for assessing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encounter. *Psychiatric Quarterly*, 73(4), 271-295.
- Mann, J. (1973). *Time-limited psycho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rissette, P. J. (1999). Family therapist self-supervision: Toward a preliminary conceptualization. *The Clinical Supervisor*, 18(2), 165-183.
- Morrissette, P. J. (2012). *셀프 수퍼비전: 초보 상담자가 전문 상담자의 길로 가는 방법* (이명우 외 공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2년).
- Nelson, M. L., & Neufeldt, S. A. (1998). The pedagogy of counseling: A critical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2), 70-89.
- Neufeldt, S. A. (2004). Critical factors in supervision: The patient, the therapist, and the supervisor. In D. P. Charman (Ed), *Core processes in brief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dvancing effective practice* (pp. 325-341). Lea.
- Neufeldt, S. A., Karno, M. P., & Nelson, M. L. (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s of supervisee reflectivity.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3-9.*
- Pack-Brown, S. P., Thomas, T. L., & Seymour, J. M. (2008). Infusing professional ethics into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A multicultural /social justic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6(3)*, 296-302.
- Rice, L. N. (1980). A client-centered approach to the supervision of psychotherapy. In A. K. Hess (Ed) *Psychotherapy supervis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36-147). Wiley.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therapists, counselor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Allyn & Bacon.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8). *심리치료의 거장* (유정이 외 공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4년).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1)*, 45-58.
- Sperry, L., & Sperry, J. (2015).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 (이명우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12년).
- Steiden, D. (1993). Self-supervision using discourse analysis. *Supervision Bulletin, 6, 2.*
- Stoltenberg, C. D., McNeill, B., & Delworth, U. (1998). *IDM supervision: An integrated developmental model for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Jossey-Bass.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psychotherapy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Development, 20(2)*, 64-88.
- Todd, T. C. (1997). Self-supervision as a universal supervisory goal. In T. C. Todd & C. L. Storm (Eds.), *The complete systemic supervisor: Context, philosophy, and pragmatics* (pp. 17-25). Allyn & Bacon.
- Watkins, C. E. Jr. (E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Wiley.
- Wiley, M., & Ray, P. (1986). Counseling supervision by developmental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439-445.
- Williams, E. N.,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 (1997). Experiences of novice therapists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4)*, 390-399.
- Yontef, G. (1993). *알아차림, 대화, 그리고 과정* (김정규 외 공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93년).

원고 접수일 : 2025. 03.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4. 17

게재 결정일 : 2025. 04. 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upervision Program for Chinese Novice Counselors in South Korea

YUE GUO Jung Hee Ha

¹⁾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 Counseling Professor

²⁾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elf-supervision model for Chinese novice counselors in Korea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e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process by Kim et al. (2011), which involves a four-stage intervention process: model planning, model construction, model implementation, and model evaluation. This self-supervision program was conducted over approximately 3 months with 10 Chinese novice counselors, and comparisons and analyses were conducted at pre- and post-test points. As a result, the self-supervision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the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and the level of counselor development of the study participant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specifically identifi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and the counselor development level of the participants. Finally,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nese novice counselors in Korea, self-supervision,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counselor development level